

# 너를 사랑

MARSA KOREA  
MAGAZINE

2017 03  
제3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늘 헌신하겠습니다.



사단 한국해양구조협회



MOK  
JANG  
WON

영도  
목장원



숯불구이 목장원



한식뷔페 오채담



카페 드 봄



펍 레스토랑 테라스 M



야외웨딩/연회



OVISTA HALL  
CONVENTION  
OPHILLOS GARDEN

[www.mokjangwon.co.kr](http://www.mokjangwon.co.kr) TEL.051.404.5000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SА KOREA MAGAZINE

2017 03  
제3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신정택  
발행일 2017년 3월 22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 714-3695  
FAX. 051) 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 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 CONTENTS

### Special Theme

- 05 총재동정 2017년 해운대 러브하우스 협약식 체결
- 06 칼럼 해양경찰청 복원, 왜 필요한가?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윤종휘 교수

### MARSА News

- 08 본부 뉴스 1) 제12차 이사회
- 09 2) 2017년도 정기총회
- 11 3)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 한국선급 故 박범식 회장 협회 기여대상 수상
- 12 4)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 참가
- 13 5) 국가자격증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신설
- 13 6)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협약 체결
- 14 지부·지역대 뉴스 1) 전국 구조대장 이·취임식  
- 통영구조대, 정읍구조대
- 16 2) 추위를 뚫고 구조활동에 나선 전국 구조대  
- 포항구조대, 완도구조대, 장흥구조대, 충청북부지부
- 20 3) 서울지부, 국제규격의 체육시설들과 업무협약 체결
- 21 4) 전남동부지부,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과 업무협약 체결
- 5) 전남동부지부, 여수시 '여수 마린스쿨' 위탁운영 업무협약 체결

### MARSА Story

- 22 안전을 부탁해 이 구역의 지킴이는 나야\_부안군청 심문식 과장
- 24 환경을 부탁해 벌써 10년, 해양쓰레기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_부산구조대
- 26 2017년 상반기 교육 제13기 재난안전지도사 수료식 및 강사워크숍

### MARSА Info

- 29 국내뉴스 1) 불청객 황사,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으로 대응!
- 30 2) 선박 안전운항 지킴이 등대, 국민 행복 위해 새롭게 변신!
- 31 3) 스킨스쿠버 등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MARSА Notice

- 32 수상구조사 신설
- 36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교육안내
- 37 2017년도 상반기 행사안내
- 38 협회회원안내



## 협회 임원 명부

### 총재단(16명)

2017.3.1~2019.2.28

연번	직책	성명	소속/직책
1	총재	신 정 택	세운철강 회장
2	이사장	민 흥 기	본회 상임임원
3	수석부총재	김 성 태	동일조선(해운) 회장
4	부총재	이 정 기	한국선급 회장
5	부총재	김 임 권	수협중앙회 회장
6	부총재	이 용 섭	한국해운조합 회장
7	부총재	김 영 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
8	부총재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9	부총재	문 병 일	Korea P&I 전무이사(상임)
10	부총재	우 예 중	부산항만공사 사장
11	부총재	나 중 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12	부총재	조 동 길	세화수산 대표
13	부총재	윤 종 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4	부총재	이 정 포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15	부총재	장 성 호	동신해운 회장
16	부총재	목 익 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이사진(14명)

연번	직책	성명	소속/직책
1	이사	김 민 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
2	이사	황 종 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3	이사	정 봉 훈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
4	이사	임 준 택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5	이사	고 성 원	대양해운 대표이사
6	이사	김 성 길	HBC해운 회장
7	이사	박 명 호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장
8	이사	박 상 무	씨스포빌 대표이사
9	이사	박 창 서	선진종합 대표이사
10	이사	한 창 범	삼원중공업 대표이사
11	이사	김 기 창	베스트씨피알 대표이사
12	이사	박 석 영	대저해운 사장
13	이사	방 현 우	지평선마린리조트 대표이사
14	이사	임 재 택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 감 사(2명)

연번	직책	성명	소속/직책
1	감사	김 성 천	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	감사	김 명 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총재동정

# 2017년 해운대 러브하우스 협약식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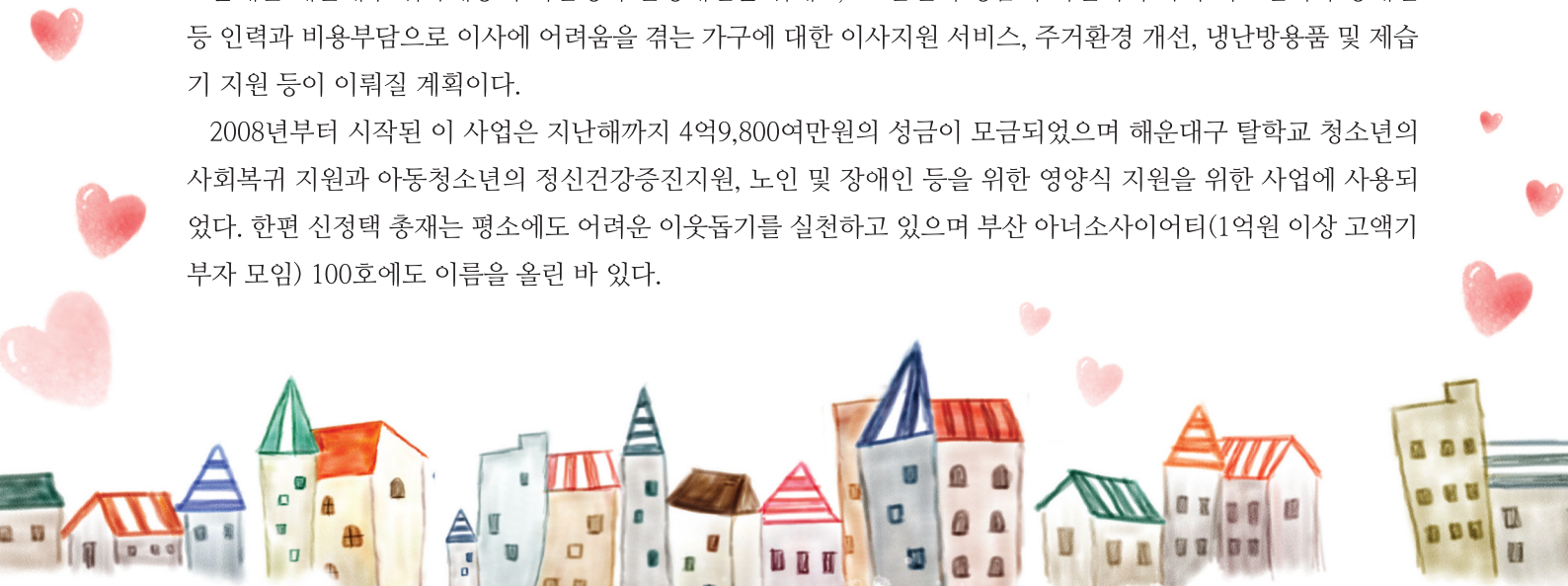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해운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오후 해운대구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해운대 러브하우스' 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왼쪽부터)원요한·백선기(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겸하고 있는 신정택 총재(세운철강 회장)는 2월 27일 해운대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017년 해운대 러브하우스'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운대구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나눔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하기 위해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해운대구 지역의 모금 및 나눔 사업이다.

올해는 해운대구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해 3,500만원의 성금이 지원되며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인력과 비용부담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이사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용품 및 제습기 지원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4억9,8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해운대구 탈학교 청소년의 사회복지 지원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지원,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영양식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다. 한편 신정택 총재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부산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100호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 칼럼

# 해양경찰청 복원,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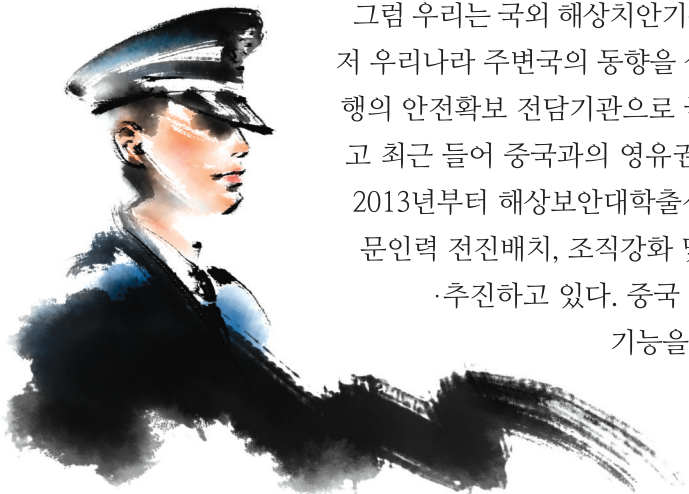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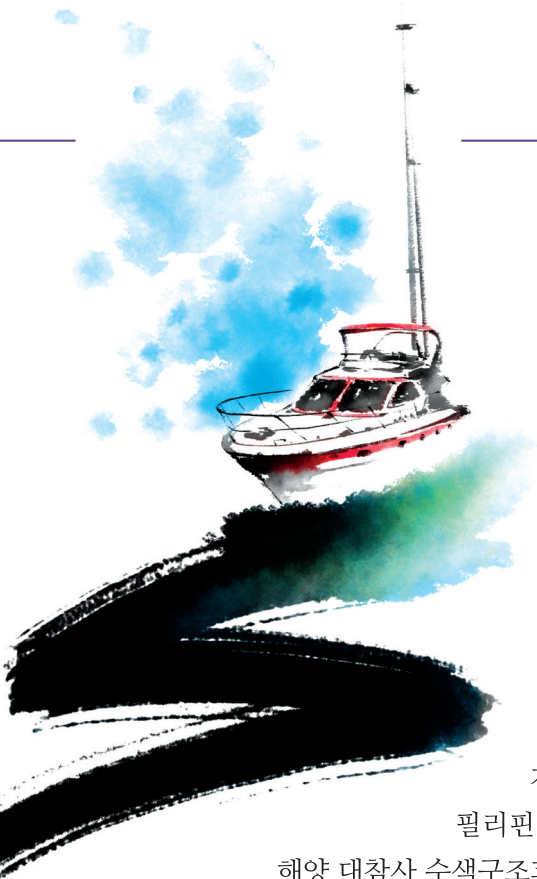
윤종휘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후, 연안국들은 경쟁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이 수역내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였다. 실제 이 수역은 해상통항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영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EEZ를 주권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분쟁수역의 주권수호, 해양안전 및 보안 확보, 해상교통로 안전 및 질서유지, 해양자원보호,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밀수·밀입국 차단, 해양환경보호 및 범접행 등의 현장집행업무에 비중을 두고 자국의 환경 및 실정에 적합한 정부조직구성 및 수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경찰(이하 '해경'이라 함)이 이에 속한다. 해경은 1953년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후 평화선 침범 일본어선 단속 및 해상 치안업무를 시작으로 상공부, 내무부를 거치면서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승격되면서 해양현장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급변하는 신해양질서 체제하에서 21세기 해양현장종합행정기관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조직확대, 장비확충 및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4년 5월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시 늦장대응, 초동대응 미숙 및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해체를 선언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을 축소·개편하였다. 이로 인해 소속원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커지고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상태이다.

## 외국의 해양현장실행력 강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

그럼 우리는 국외 해상치안기관의 최근 움직임과 유사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48년 해상치안 유지와 선박항행의 안전확보 전담기관으로 국토교통성 산하 해상보안청(JCG)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장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해상보안대학출신 해양현장전문가를 해상보안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문인력 전진배치, 조직강화 및 함정·항공기 확충 등 해양경비력 증강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2013년 5개 기관에 분산된 해양경비 및 해상치안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해양국(SOA) 산하 중국해경을 창설한데





이어, 법집행, 해양자원보호 및 해양주권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2,000톤급 대형경비함 건조를 포함하여 경비세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 여론으로 조직의 축소 또는 존폐위기에 봉착한 해상 치안기관에 대한 해양선진국의 대응방식을 조사해 보면, 미국에서는 1990년초 200년의 역사를 지닌 코스트가드(USCG)의 기능분산 및 해체가능 여론이 일자 범정부 차원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1세기 국가 해사 이익수호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관임을 재확인하고, 오히려 USCG의 장비 현대화 프로젝트를 국가우선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정부예산절감 일환으로 1995년 교통부 산하 코스트가드(CCG)를 수산해양부 소속 본부로 편입시켰다. 그 후 조직의 업무수행도가 점차 떨어지자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직체계상의 문제와 소속원의 사기저하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마침내 2005년 독립외청으로 승격시켰다.

필리핀에서는 1987년 여객선 Dona Paz호의 충돌·침몰사고로 약 4,386명이 사망한 해양 대참사 수색구조과정에서 코스트가드(PCG)의 부적절한 수색구조시스템 및 현장 늦장 대응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보강 및 장비확충을 통해 코스트가드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경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움직임과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상치안기관의 조직을 확대하는 해양선진국의 대응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정부가 해경해체를 선언했을 때 해양관련잡지(Maritime Executive)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해양현장관리 기능을 통합 운용하고자 2013년 중국 해경을 창설하였다. 이 때 우리나라 해경이 해양현장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성공사례로 평가됨으로써 중국의 조직개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년후 벤치마킹 대상기관은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꼬집었다.

### 해양현장관리 효율극대화를 위해 해경조직 재개편이 필요하다!

해양현장업무수행에는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예측·극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종 자동화·첨단화 장비가 장착된 함정 및 항공기가 동원되어야 한다. 어떠한 해상 및 기상 상태하에서도 작전은 전개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만큼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에 의한 즉각적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합·적정 수량의 장비와 이론·실무를 겸비한 전문요원의 확보, 신속한 지휘명령체계 구축 및 구성원의 투철한 사명감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경의 현 조직체계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 조직, 인사, 예산, 지휘통제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해경조직을 재개편함으로써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길이길이 보존하길 기대한다.



## 제12차 이사회 개최



제12차 이사회 회의 모습

지난 2월 24일, 우리협회는 부산 목장원에서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총재, 이사 및 지부협회장 등 총 44명(참석 21명, 위임 23명)의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주요안건은 교육관리규정 제·개정 건, 지부설립 및 명칭변경, 구조대 설립 건, 2016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및 결산 의결 건,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임원 선출 및 추천 건 등이 심의 되었다.

우선 새로 신설되는 수상구조사 관리교육규정과 관련하여 제17조, 교육생의 자격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유형, 평영 25m 이상 가능한 자에

한해 교육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소폭 완화하였다.

지부 및 구조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전북남부지부를 부안에 새로 설립하기로 의결 제안함에 따라 기존의 전북지부를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전북북부지부로 변경하였으며 부산지부 소속 해운대 구조대 설립도 승인하였다.

임원 선출 및 추천 건과 관련하여 정관 제 14조에 의거, 2017년 2월 28일부로 전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총 29명의 임원을 선출(2명) 또는 추천(27명)한 후 총회에 승인 또는 선출을 요청하였다.



# 2017년도 정기총회

## 신정택 총재 등 새로운 임원단 구성



▲ 정기총회 기념촬영

지난 2월 24일, 이사회에 이어 2017년도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는 신정택 총재를 비롯한 임원진 및 구조대원 80여명 등이 참석하였고 김병로 해양경비안전본부 구조안전국장, 정봉훈 해양수색구조과장, 김홍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김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였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축사(김병로 구조안전국장 대독)를 통해 “현재 해양에서의 민간구조세력

이 둘로 나뉘어 있어 운영과 지원 등에서 효율성이 제한받고 있다.” “해경본부는 올해 해양구조협회, 민간 해양구조대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양구조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해양수색구조분야 유공자에게는 국민안전처장관 표창장, 협회발전에 기여한 단체에게는 기여대상, 공로패, 표창장 등을 수



## MARSA NEWS | 본부 뉴스 |

여하였다.

이날 신정택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해양경비안전 본부는 기존의 경비안전국을 ‘경비국’과 ‘구조안전국’으로 분리하여 구조와 안전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협회와는 보다 가까운 스킨십이 가능해졌고, 다수의 해양수산인들은 해상치안주권의 회복과 해양안전을 위해서 해양경찰의 부활과 독립을 강력하

게 주장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협회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와 “임원선출 및 승인”의 건도 의결하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수여



▲ 기여대상, 공로패 및 표창장 수여

## | 포상수여자 명단

### • 장관표창 (해양수색구조분야 공로)

정동조(충청북부지부), 장종철(통영구조대), 김성수(경주구조대), 황인수(장흥구조대), 전승윤(경남동부특수구조대)

### • 기여대상 및 공로패 (협회발전기여)

나종팔(한국도선사협회장), 故 박범식 (전,한국선급회장), 김막동(정읍구조대), 김기현(부안구조대), 진경진(고흥구조대), 서석주(진주사천구조대), 장종철(통영구조대), 임명식(속초구조대)

### • 단체표창

우수지부 : 부산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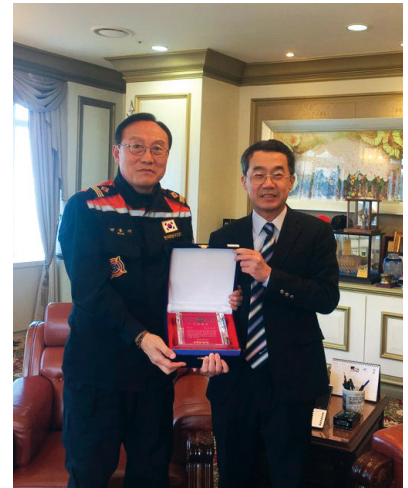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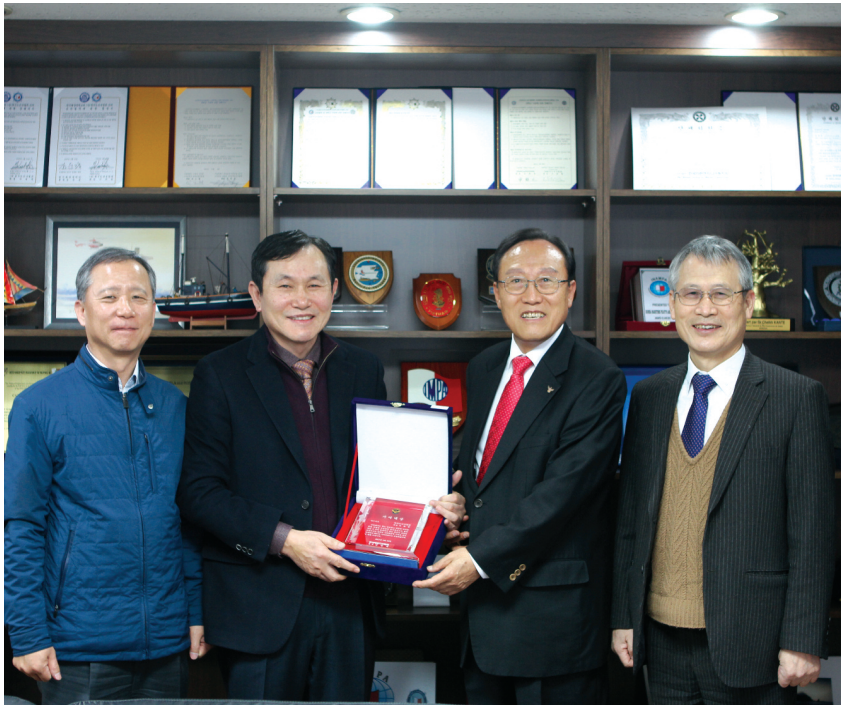
우수지역대 : 통영구조대, 마산구조대

### • 개인표창 (협회발전기여)

박동규(경남동부특수구조대), 김연철(경북지부), 박승자(고흥구조대), 신원선(남양주구조대), 김은하(울산지부), 김영미(울산지부), 송혜리(인천지부), 김성필(장흥구조대), 어윤봉(창원구조대), 정영현(충청북부지부), 조기암(통영구조대), 장재완(포항구조대)



#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 한국선급 故 박범식 회장, 협회 기여대상 수상



▲ 3월3일 민흥기 이사장이 故 박범식 회장을 대신하여 한국선급 하태범 경영본부장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 3월8일 민흥기 이사장이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지난 2월24일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과 한국선급 故 박범식 회장에게 '2017년 기여대상'을 수여하였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협회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며 협회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나종팔 한국도선사 협회장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 인천항발전협의회 부회장,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위원, 해상치안행정발전협의회 위원 등을 맡아오면서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해왔으며 故 박범식 회장은 Korea P&I 전무이사로 국내 해상보험의 기초를 만들었고, 제22대 한국선급회장으로 부임한 후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 보험, 선급 분야에서 도약의 터전을 마련해왔다.

개인적인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나종팔 회장과 故 박범식 회장의 상패는 민흥기 이사장이 회원사에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 참가



◀ 구명조끼 착용법 교육

지난 2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국민안전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주최한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협회는 해상에서 선박사고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과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모형선박과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실제사고와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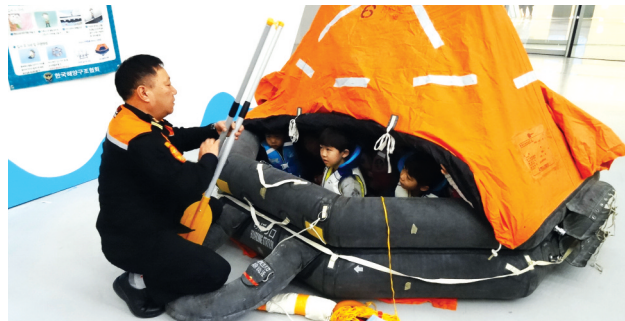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서울지부 소속 재난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요원 8명이 배치되어 체험관을 운영하였

으며 행사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여명의 어린이들이 협회 체험관을 방문하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울지부 김상철 협회장은 “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유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처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체험과 반복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봉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선박에 탑승을 기다리는 어린이들



▲ 구명뗏목 탑승 및 퇴선훈련



## 국가자격증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신설

3월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수상구조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우리협회는 오는 4월부터 수상구조사 교육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국민안전처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역량강화를 위해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기관만이 수상구조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수상구조사 자격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 과정을 수료 후 전국의 지정된 국가자격시험장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자격시험은 6개 과목으로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단, 각 과목당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우리협회는 지금까지 인명구조요원, 해양안전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등 해양구조 전문인재를 1만 명 이상 배출해왔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강사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히, 수상구조사 전문교육을 위해서 국제규모를 자랑하는 전국 각 지역의 체육관리시설 4곳(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수영장,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남부대학교 내 국제수영장, 서울반포(일반.요트)면제교육장)과 MOU를 체결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상구조사 첫 교육은 오는 4월,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공지는 3월말 한국해양구조협회 공식 홈페이지(www.mars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월 23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해양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양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국제규격의 실내체육관, 야구장, 종합 실내훈련장,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궁도장 등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2002년 부산아시아 게임 개최 당시 주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협회는 인명구조요원 및 신설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등의 교육 진행 시 수장



▲ 2017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김유창 소장과 우리협회 민흥기 이사장이 업무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선진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설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국 구조대장 이·취임식

## | 통영구조대장 이·취임식

지난 3월3일 통영시 해피데이 웨딩홀에서 통영구조대장 제14·15대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 단체사진

활동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YMCA 사랑의 연탄나르기, 장애인복지관, 미혼모 시설 후원 활동 등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손길을 내밀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박상춘 총경, 이학석 통영 부시장, 문성덕 통영 시의회 부의장과 통영구조대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하여 이·취임식을 축하하였다.

통영구조대는 2001년, 해양구조단 통영 지역대로 시작하여 올해로 16년째 통영시 해양안전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특히 장종철 이임대장은 임기 2년동안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수중·수변정화활동, 인명구조훈련, 실종자 수색작업, 구난



▲ 이임사 중인 제14대 장종철 대장



▲ 임명장을 전달받는 제15대 제주석 대장



장종철 대장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대원들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지장을 감수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폭풍 속에서도 표류선박을 예인하는 등 목숨을 건 구조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대장이라는 중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직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석 신입대장은 10여년 넘게 통영구조대의 대원으로서 지금까지 통영구조대가 이뤄온 업적에 발자취를 함께 해 왔다.

제주석 대장은 “가족들과 보내야 하는 휴일을 수시로 반납하고 봉사라는 이름아래 본인의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해온 대원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다”며 “이런 대원들이 함께하는 통영구조대 대장을 맡게 되어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 정읍구조대장 이·취임식

지난 1월 10일 정읍시 이화가든홀에서 정읍시 유진섭 시장의장, 정읍시청 안전총괄과 노영일 과장을 비롯하여 정읍구조대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정읍구조대장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정읍구조대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선 헌신해 오다 영예롭게 이임하는 김막동 대장을 격려하고 새로이 취임하는 서한표 대장과 대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읍구조대는 2010년 발대 이후 옥정호, 내장상수원, 변산, 격포, 상록, 줄포 등 수중·수변정화활동을 지속해 오며 환경정화에 노력해왔으며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상황근무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오는 등 해양구조협회의 중추적인 지역대로 발전해 왔다.



▲ 단체사진

서한표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양안전이라는 우리의 기본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지만 그전에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해양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대원들과 함께 성실히 이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추위를 뚫고 구조활동에 나선 전국 구조대

## | 포항구조대, 차량 바다추락사고 출동

지난 3월5일 오후3시 포항시 송도동 보트 계류장에서 20대 남녀가 차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내리던 도중 차량이 물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소식을 접한 포항구조대 김복수 대장과 전복룡 사무국장은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인양작업을 진행하였다. 다행히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인근의 다른 목격자들이 사고 즉시 차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오후 4시 15분 포항구조대는 차량 인양작업을 끝내고 구조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 차량인양을 위해 직접 잠수준비를 하는 김복수 포항구조대장

## | 포항구조대, 오도2리 해상 앞바다 실종자 구조작업

2월 15일 오전9시 10분 포항시 흥해읍 오도2리에서 조업을 나갔던 60대 어촌 계장이 그물을 투망하던 중 바다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실종자 수색작업 중인 포항구조대원과 해양경찰

사고를 접수한 포항구조대는 해양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번 수색을 위해 포항구조대는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구조대원과 구조선 2척 그리고 수중스쿠터 6대를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등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였다.

사고지점의 수심이 30~47미터 가량으로 매우 깊고 조류가 강하여 수색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5일간 지속된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는 끝내 찾지

못하고 사고 당시의 그물망과 작업용 팔토시만 발견되었다.



## | 완도구조대, 보길도 실종자 수색작업

2월 14일 오후2~3시경 완도읍 보길도에서 다시마를 채취하러 가다 실수로 발을 헛디뎈 바다로 추락한 80대 A씨가 실종 됐다는 소식을 해경으로부터 전달받은 완도구조대는 김정환 대장과 3명의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였다.



◀ 실종된 A씨가 타고 있던 어선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완도구조대

완도구조대원들은 개인용 잠수장비를 활용하여 물속 깊숙이 로프를 고정하고 섹터를 나누어 반원형 탐색방법으로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색 당시 한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시야확보가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합동으로 3일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한 A씨의 사체는 일주일 뒤 소안도 해상 근해에서 발견되었다.

## | 완도구조대 생일도 실종자 수색작업

2월 8일 우리협회 완도구조대는 완도 생일도에서 실족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해양경찰 연락을 받고 완도구조대 이동현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모철원, 김동욱 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는 생일도에서 다른 섬으로 이동하기 위해 선박을 기다리던 A씨가 선착장에서 대기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발을 헛디뎈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A씨는 수색작업 도중, 바로 옆 선착장에서 발견되었으며 곧바로 해양경찰에 인계되었다.



▲ 실종자 인양중인 완도구조대원들과 해양경찰



## | 장흥구조대, 물양장 소형선박 인양

2월 10일 장흥군 회진항 물양장에서 소형선박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육지로 인양된 사고선박

사고신고를 받은 장흥구조대는 백경동 대장을 비롯한 3명의 구조대원이 출동하여 선박인양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고는 정박 당시 고박로프를 너무 짧게 설치하여 너울성 파도에 대비하지 못한 선장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구조대원들은 잠수 후 선박과 크레인을 연결하여 사고선박을 인양하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 | 장흥구조대, 선박충돌사고 구조활동 나서

지난 1월 18일 득량만 해역에서 2톤급 어선 2대가 낙지잡이 통발작업 중 선장의 부주의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각 어선에는 총 4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 사고선박 인양중인 장흥구조대와 해양경찰

사고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장흥구조대 백경동 대장을 비롯한 총 9명의 구조대원들과 함께 출동하였고 장흥구조대에서 보유한 잠수장비 및 구조용 보트와 인양시설이 탑재된 어선 2척도 함께 투입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 및 선박 인양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였으나 선원 4명중 1명은 충돌사고 당시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충청북부지부, 안면도 낚시 실종자 구조작업

지난 12월30일 태안군 안면도 구연육교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A씨가 실종 됐다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과 충청북부지부 소속 구조대원들이 함께 출동하였다.



◀ 실종자 수색작업 중인 충청북부지부 소속 구조대원들과 해양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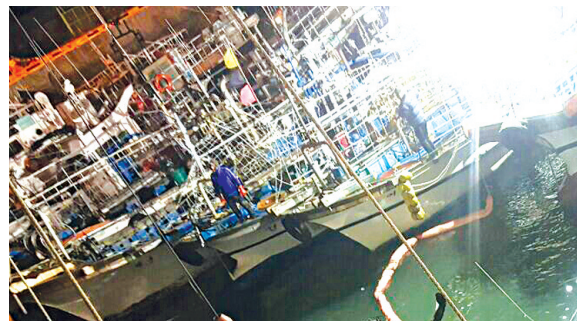
수심은 깊지 않으나 조류가 매우 강한 곳으로 간조 시를 기다려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구조 당시 충청북부지부 소속 구조대원들의 개인용 스쿠버 장비와 구조선박 4대 등이 투입되었으며, 하루 평균 14명의 구조대원들이 해양경찰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8일간의 긴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종자는 찾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 | 충청북부지부, 모항항 선박 전복사고 인양작업

지난 1월 13일 오후9시 30분경 모항항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이 시속 25m 강풍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신고를 받은 충청북부지부는 소속 구조대원 정영현 사무국장을 비롯한 3명의 구조대원이 출동하였다.

다행히 사고 당시 선박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오전10시부터 시작된 인양작업은 새벽4시가 되어 완료되었다.



▲ 전복된 사고선박을 수습중인 충청북부지부 소속 구조대원들



# 서울지부, 국제규격의 체육시설들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부는 지난 1월 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잠수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이어 2월 7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반포면제 교육장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7년 1월 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잠수풀장과 서울지부가 업무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국가정책 및 제도개선에 공동으로 협력하며 수상구조사 등 해양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교육실습장 등의 공동활용 및 교육에 상호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교육 참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곧 신설되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대비를 위해 서울지부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자 이와 같은 협약을 진행하였다.

서울지부 김상철 협회장은 “이번 협약들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장을 제공할 수 있고 협회와 지부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하였다.



▲ 2017년 2월7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반포면제교육장과 서울지부가 업무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동부지부,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과 업무협약 체결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1월 24일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산·학이 협력하여 해양안전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과 전남동부지부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대학교는 국제수영장은 협회의 교육시설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선진인명구조시스템 확립을 위해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자격증으로서 수상구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교육생들에게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며 그 외에도 인명구조요원 교육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남동부지부, 여수시 '여수 마린스쿨' 위탁운영 업무협약 체결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2월20일 여수시와 함께 '여수 마린스쿨' 위탁 운영 협약식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마린스쿨은 여수시민들을 위해 해양관련 자격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급 조종면허'와 '수상인명구조요원' 취득을 위한 무료교육으로 전남동부지부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별써 3월에는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학생 35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 교육을 받기 위해 인천광역시 등에서 여수로 주소를 옮기는 등 인구유입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여수시는 2개 종목 한 기수당 각 20명씩 총 5기로 마린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200여명이 해양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격 취득자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체험 교실과 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 전남동부지부 조병중 협회장과 주철현 여수시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을 부탁海



## 이 구역의 안전지킴이는 나야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심문식 과장

매년 2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부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진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줄포·진서·변산·하서·계화로 이어지는 해안권 관광벨트 출발점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타운이 조성돼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숨은 안전지킴이를 자처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심문식 과장이다. 국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인 ‘안전할 권리’를 위해 부안군의 다양한 곳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 |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 |

세월호 사고 직후,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골든타임에 대한 중요성이 이슈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

“사회적 안전문제를 철저히 통감하고 재난안전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심문식 과장의 이러한 생각은 2015년 우리협회에 직접 문을 두드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16년 1월 직접 재난안전지도사 교육과정(제10기)을 이수하고 재난안전지도사가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시작한 심문식 과장은 혼자서만 모든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안군청 및 생태공원의 직원들에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재난안전지도사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등 후진양성에도 힘쓰게 되었다.

“해양수산과는 업무 특성상 바다 자원회복 및 증강은 물론이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업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의 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부안군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점차적으로 전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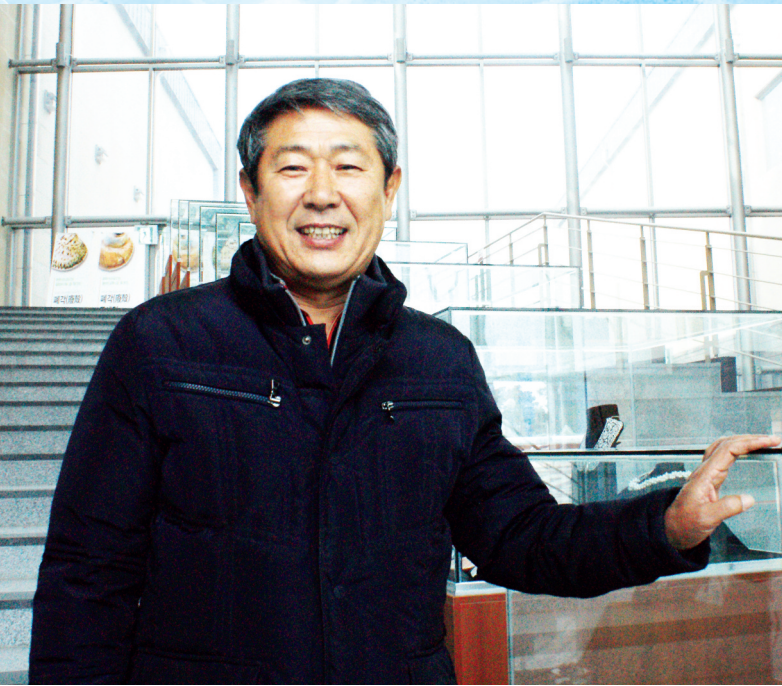
금번 13기 재난안전지도사 교육에는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이훈기(42)씨와 차정명(37)씨가 수료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 | 줄포만 갯벌생태공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는 파크골프장, 자전거 타기, 물놀이 체험장, 보트 체험장, 수상자전거, 카약 등 방문객들이 수상레저 등을 비롯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상레저 체험을 위해서는 체험전 반드시 재난안전지도사로부터 수상안전 교육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있어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특히 ‘줄포만 생태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환경(생태)교육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교육을 함께 구성하고 방문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곳



▲ 부안군청 해양수산물과 심문식 과장

곳에 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재난은 언제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또한 안전불감증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만연화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고맙게도 생태공원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함께 현장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이곳에는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재난안전지도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알림으로써 관광객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

**| 부안군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지킴이 |**

2014년 해수욕장법이 개정되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갑작스레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 심문식 과장은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5개소(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해수욕장을 가장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객들

의 동참을 이끌기도 하였다.

또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며 해수욕장마다 CCTV 설치를 대폭 늘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더 안전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

“우리 부안군은 삼면이 바다인 변산반도로 1,200여척의 어선이 항상 어로활동을 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해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해난사고 시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어촌계 별로 재난안전지도사를 배출함은 물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난안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린 시절부터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한다”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드린다’라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사자성어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부안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오복과 함께 재난안전교육을 하나 더 가슴에 담아드리고 싶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희망하시는 방문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홈페이지(<http://julpoman.buan.go.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신청이 가능하다.



▲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심문식 과장



환경을 부탁海



# 벌써 10년, 해양쓰레기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우리협회는 지난 2007년 해양구조단 시절부터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에 착수하면서 2008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보령, 부안, 부산, 고흥, 진사구조대가 각 지역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햇수로 벌써 10년째이다.

한겨울 추위를 뚫고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나선 부산구조대를 통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인터뷰\_ 부산구조대 김경진 대장



◀ 김경진 부산구조대장과 대원들이 쓰레기를 분류하며 기록하고 있다.

### |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활동의 시작 |

2008년 당시, 우리협회는 전국 20곳을 지정하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어 자료수집분야에 한해 아직 5곳의 구조대에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유입원 별로 육상활동에서 발생하여 강이나 해변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과 선박 및 어로활동을 통해 바다에서 직접 유입되는 해양기인, 해류나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외국기인으로 분류된다.

이 활동을 시작할 당시 대마도에서 한국 유입 쓰레기가 많다는 소식에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부산이 지정되면서 부산구조대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과 종류 등을 분류하여 육상기인 혹은 해양기인 등 유입원을 파악한다. 또한 외국기인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화 하여 외국 환경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활동은 해양쓰레기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수산자원의 고갈, 관광자원의 황폐화, 경제적 손실 등 인류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사용되며 과학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 구체적인 활동 방법 |**

현재 울산 진하해수욕장과 부산 해양대학교 자갈마당에서 2달에 1번씩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약 2시간에 걸쳐 연안을 따라 쓰레기를 수집한 후 종류별로 분류작업을 한다. 기록카드에는 쓰레기의 개수, 양, 무게, 유입원 등을 표기한다.

과거에는 스티로폼 부표와 플라스틱 양이 많았다면 근래에는 일회용 음식용기나 PET병 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단체들과 이와 같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매년 2번 정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곳에서는 환경교육을 시작으로 전체 수거된 쓰레기 종류의 변화, 지역별 쓰레기 분포도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지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법과 의견을 공유한다.

**| 10년의 기록이 준 보람 |**

10년전 구조대원들만 참석했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현재

이들의 가족과 이웃까지 함께 하는 정례행사가 되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자체가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꼭 자녀들과 함께 활동한다. 또한 일반인들의 환경인식제고를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자들의 참여도 함께 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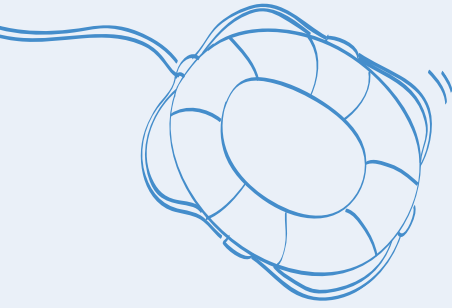
부산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활동해오고 있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들어낸 결과는 구체화된 데이터로 남아 있다. 이 자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존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부산구조대가 활동하는 가장 큰 자부심이며 동기부여가 된다.



▲ 부산구조대원들과 가족들이 해양대학교 자갈마당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2017년 상반기 교육



## 최초 4분! 생명을 구한다 제13기 재난안전지도사 수료식 및 강사워크숍

### | 제13기 재난안전지도사 |

우리협회는 지난 2월 19일 부안군 출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제 13기 재난안전지도사 1급과정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재난안전 지도사는 해양구조 전문봉사단체로서 안전한 바다! 행복한 바다! 라는 슬로건 아래 선진 해양안전문화보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가 양성과 지도능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매주 22시간씩, 3주에 걸쳐 총 6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평가를 통과해야만 재난안전지도사 1급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참가자들은 3주간, 매주 3일 동안 합숙생활을 하면서 교육 규정 숙지를 시작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사용법, 응급 처치술, 상처, 골절, 운반법, 재난안전, 교수법 등 이론수업과 실 기수업을 함께 병행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우리협회는 2005년도부터 약 830여명의 재난안전지도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총 11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고 앞으로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생들은 일반 회사원,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학생, 어린이집 교사, 대학생, 공무원, 주부 등 다양각색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

으며 그 목적과 동기도 다양하다.

제13기 수료생인 이훈기(42)씨와 차정명(37)씨는 현재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이다. 이들의 교육참여는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안전지식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 외에도 특별히 강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지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13기 수료생 강순희(40)씨는 수료증을 전달받으며 “심폐소생술 실습이 이렇게 힘든 과정인지 몰랐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던 만큼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안왕근(61)씨는 “남을 위해 도움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다. 또한 온 국민이 재난구조자가 되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들이 쏟아 부은 열정이 아깝지 않도록 불시에 닥치는 재난 속에서 본인의 생명과 가족 그리고 이웃, 나아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자취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본다.



▲ 제13기 교육생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 제13기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민흥기 이사장



▲ 분회 민홍기 이사장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 ▶ 위) 경력강사들이 본인을 소개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 ▶ 아래) 강사 워크숍 기념촬영



**|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강사 워크숍 |**

같은 날, 제13기 재난안전지도사 수료식이 끝난 직후 강사 워크숍도 함께 개최되었다. 총 60여명이 참석한 강사워크숍은 경력 강사들의 소개와 함께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며 시작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신설교육규정 안내와 개정교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경험이 오래 될수록 실제 응급상황에 직면한 횟수도 많아진다. 해양구조단 시절부터 협회소속 강사까지 약 20년 동안 전문강사로 지내온 박영선 교수는 우리협회의 인재양성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녀 또한 경력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면하기도 한다.

한 사례로 2015년 4월 박영선 교수가 근무중인 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쓰러진 적이 있었다. 119가 출동하기 전, 당황한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의 빠른 응급처치로 학부모는 위급상황을 넘긴 적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협회 강사로 5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적십자 구조대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조재성 강사는 2004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당시, 현장에 비상구조구급대로 참여하며 부상자 응급처치와 화상처치를 통해 많은 응급환자들을 구한 적이 있다.

올해로 강사경험이 3년째인 윤상희 강사는 아이가 오디오 키를

잘못 삼켜 기도가 막힌 위험천만한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개방을 하여 위급한 상황을 넘겼던 경험도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된 강사들은 배웠던 매뉴얼과 적절한 상황별 대처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더 큰 재난을 막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구조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재난안전지도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강사들은 본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강사들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 상호간에 노력해 오고 있다. 이것이 강사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날은 특별히 분회 민홍기 이사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해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자 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강연의 끝으로 민홍기 이사장은 제13기 재난안전지도사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기존 강사들을 격려하며 “재난안전지도사라는 전문 자격증 취득을 시작으로 본인의 전문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분야로 융합 및 확장시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 2017년 상반기 교육



▲ 포항구조대\_포항해경 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



▲ 서울지부\_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



▲ 전북남부지부\_인명구조요원 교육



▲ 서울지부\_공덕역 심폐소생술 캠페인



# 불청객 황사,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으로 대응!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봄철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5.4일)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81~’10년)에는 연평균 6.4일의 황사가 발생하였으며, 월별 황사 발생일수는 4월에 2.5일로 가장 많았고, 3월(1.8일), 5월(1.1일) 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10년(’07~’16년)간은 3월에 발생일수가 증가하여 평균 2.4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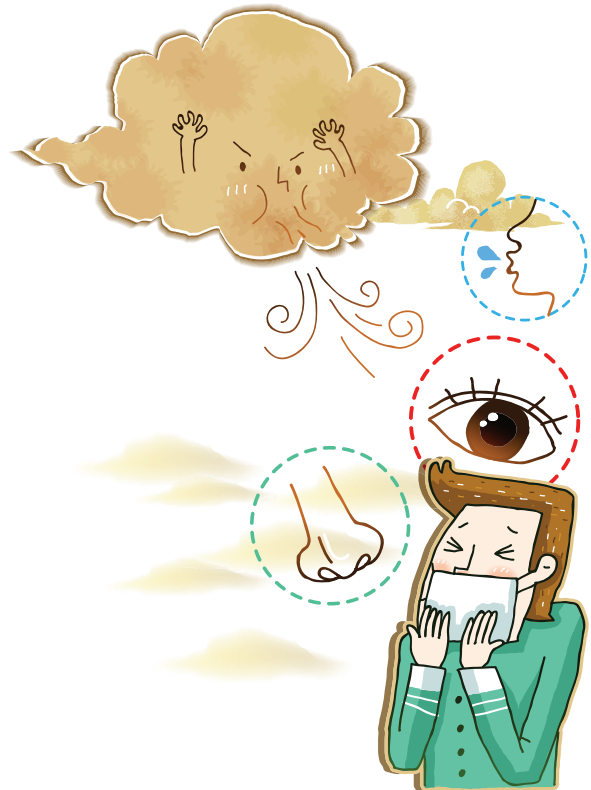
황사는 건강, 교통, 산업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개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및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켜 황사발생 후에는 평소보다 호흡기 진료환자와 이비인후과 진료환자가 증가한다. 또한, 몸에 흡수된 미세먼지는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에 혈전이 쌓이게 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을 4배정도 증가시키고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 높인다.

이러한 황사로 인한 건강질환은 황사 발생단계별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황사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

발령단계에 따라, 황사 예보 시에는 외출 시에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한다.

황사특보 발령 시에는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황사가 지난 간 후에는 실내를 환기시키고 황사에 노출



된 물품 등은 세척 후에 사용한다.

황사 발령 단계는 TV,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민안전처는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은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며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알려지성 체질이나, 어린이와 노약자는 황사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국민안전처 ]

국내 뉴스

# 선박 안전운항 지킴이 등대, 국민 행복 위해 새롭게 변신!



## 해수부, 2027년까지 전국 38개 유인등대 대상 '유인등대 복합기능화 전략'추진

경치 좋은 등대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 아름다운 바다에 내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즐기고, 일일 등대지기가 된 기분으로 등대지기의 잠자리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어떨까? 이러한 낭만적인 상상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근해 선박들의 안전운항 지킴이로 활약하는 등대가 영토수호 및 불법조업 감시 기지, 해양문화공간으로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모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27년까지 전국 38개 유인등대기능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유인등대 복합기능화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 ▲ 해양영토 관리? 불법조업 감시 지원

독도, 마라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한 7개 등대에 권역별 무인도서 관리 등 해양영토 관리 관련 기능을 부여하고, 서해 및 남해 영해기선 부근에 위치한 소청도, 흥도 등대 등 7개소에서 불법조업감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 무인화 등대? 다중이용 등대 중심으로 해양문화공간 조성

현재 운영 중인 유인등대 중 일부(13개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원격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 무인화를 추진한다. 무인화된 등대의 숙소, 사무실 등 부대시설물은 관할 지자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위탁하여 미술관, 레스토랑 등 국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또한 영

도, 오동도, 우도, 울기등대 등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다중이용 등대 9개소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등대는 옛 등탑 복원사업, 공간 정비 등을 통해 해양문화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 해양관측 및 통신 기지로 활용

기온·강설·수온 등 기상 및 해양의 상태를 관측하는 해양관측기지로등대를 활용하고, 이 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휴대전화 중계기 등 통신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주요 항로에서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인가가 드문 도서지역 등대에는 비상구호 물품 등을 비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대피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38개 등대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까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전국 등대 운영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감시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등대 본연의 기능인 선박안전운항 지원에도 충실하기 위해 항로표지 정보,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형 등대관리시스템을 2022년까지 도입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대표적인 항로표지 시설인 등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영토 지킴이, 문화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앞으로 등대가 국민들께 더 가깝고 친숙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



# 스킨스쿠버 등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올해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한 총 338개의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체험활동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http://imsm.mp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김용진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 국민안전처 ]



## 2017년도 국가자격『수상구조사』교육 시행 공고

### | 개 요 |

#### ■ 목적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수상사고에 대한 구조사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고도화 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 내용

- 기 간 : 연중 (평일반, 주말반)
- 장 소 : 서울교육장, 부산교육장, 광주교육장
  - 서울 - (이론) 서울반포(요트, 일반)면제교육장, (실기) 수원월드컵수영장  
☞ 문의 : T. 02-711-0133 F. 02-711-5207 E-mail. kmrc.seoul@hanmail.net
  - 부산 - (이론) 사직실내수영장 교육장, (실기) 사직실내수영장  
☞ 문의 : T. 051-714-3695 F. 051-714-3095 E-mail. kmrc119@hanmail.net
  - 광주 - (이론) 남부대학교 교육장, (실기)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 문의 : T. 061-641-0122 F. 061-840-2746 E-mail. marsa122@naver.com

#### ■ 예비모임 및 사전평가

- 일시/장소 : [교육일정 참조]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신분증, 입장료

### | 교육신청기준 |

#### ■ 다음 기준을 갖추어야 교육신청 가능

- 교육생의 나이가 만14세 이상 남·녀 누구나  
※ 단, 만14세 ~ 만18세 이하의 경우 친권자 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 | 사전평가기준 |

#### ■ 사전평가종목 - 교육 전 개인의 수영능력 평가를 위한 실기

과 목	내 용	비 고
자유형	25m 이상 가능한자	
	자유형 시 바닥에 발이 닿지 않고 수영가능한 자	
평영	25m 이상 가능한 자	
	평영 시 바닥에 발이 닿지 않고 수영가능한 자	
잠영	1m 수면 하에서 20m 이상 잠영 가능한 자	
	신체 일부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경우 실격	
입영	수면 위에서 양손 들고 2분 이상 동안 신체를 지탱 가능한 자	
	뒤로 누운 자세로 호흡만으로 신체를 지탱 하는 경우 실격	

## | 세부교육내용 |

### ■ 영법 - 총 100m 완주 목표 (1분 30초 이내 ~ 1분 45초 이내)

- (머리들고 자유형) 수영장 25m 완주 훈련
  - 자유형으로 진행하되 머리는 들고 익수자를 주시하면서 신속히 완주
- (평영) 수영장 25m 완주 훈련
  - 기본 수영영법(평영)으로 신속히 완주
- (트러젠) 수영장 25m 완주 훈련
  - 팔동작은 자유형, 발동작은 평영으로 익수자를 주시하면서 신속히 완주
- (잠영) 수영장 25m 완주 훈련

### ■ 수영구조

- (입수법) 요구조자를 구조 시 물에 뛰어 들어가는 동작
  - 다리벌려, 다리모아, 다리굽혀, 머리먼저들어가기 등
- (접근법)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영접근 동작
  - 머리들고 자유형, 머리들고 평영, 트러젠 등
- (구조법)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동작
  - 수하접근, 뒤집기, 끌기, 풀기 등
- (운반법) 요구조자를 구조하여 운반하는 동작
  - 겨드랑이끌기, 가슴잡이 등



### ■ 장비구조

- (입수법) 요구조자를 구조 시 물에 뛰어 들어가는 동작
  - 다리벌려, 다리굽혀, 머리먼저들어가기 등
- (접근법)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영접근 동작
  - 머리들고 자유형, 머리들고 평영, 트러젠 등
- (구조법)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동작
  - 튜브전달, 뒤집기, 감기, 풀기 등
- (운반법) 요구조자를 구조하여 운반하는 동작
  - 겨드랑이끌기, 가슴잡이 등

### ■ 장비구조

- (머리지지/머리·턱 고정) 경추손상 요구조자 구조 시 머리·턱 고정
  - 경추손상 요구조자 구조
- (입영)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동작
  - 수면 위로 손목을 내 놓은 상태에서 다리만 사용하여 5분 이상
- (스컬링)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동작
  -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구조자의 팔 동작, 얼굴과 발끝이 수면 위





- (익수자운반)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동작
  - 중량물 5kg을 25m 운반
- (구명뗏목)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퇴선조치
  - 위급 시 선박퇴선 요령, 구명뗏목 사용법, 의장품 안내 등
- (구명동의)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퇴선조치
  - 올바른 구명동의 착용 방법, 해수욕장 및 선박 내 구명동의 활용방법
- (퇴선)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퇴선조치
  - 퇴선 방법 및 뛰어내릴 때 자세 등

### ■ 응급처치

- (성인 심폐소생술) 심정지 요구조자 가슴압박 방법
  - 성인 구분, 매뉴얼 절차 숙지 등
-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심정지 요구조자 가슴압박 방법
  - 소아 및 영아 구분, 매뉴얼 절차 숙지 등
- (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요구조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 AED 작동법, 패드부착 위치, 매뉴얼 절차 숙지 등

### ■ 장비기술

- (로프 매듭법)
  - 상황별 로프 매듭방법, 매뉴얼 절차 숙지 등

## | 교육기간 및 장소 |

### ■ 주요일정

- 접수기간 : '17. 3. 20(월)~연중 (홈페이지 참조)
- 교육비 : 45만원 (교육접수 시 납부 / 교육시행 전 환불 가능)
  -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 신청방법 : 온라인(e-mail)접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비모임 및 사전평가 합격 시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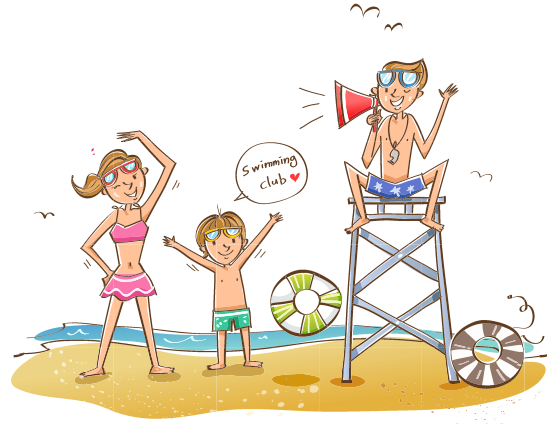
###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양식 1)
- 면책동의서 1부(양식 2)
- 병력기록서 1부(양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양식 4)
  - 위 모든 서류는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함
  - 심장질환, 뇌질환 등 교육 받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불가



■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의 부주의로 사전평가 불합격 시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 사전평가 후 불합격자는 교육비 환불
- 수영장 입장료 본인 부담
- 교육수료(64시간) 후 재교육 불가



| 기타 준비물 |

- (이론) 필기도구
- (실기) 운동화, 트레이닝복장(상,하),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 교육일정 |

- 매년 교육시행을 인터넷에 공지
- 평일반, 주말반 운영 예정
- 예비모임 및 수영 사전평가 실시

연번	교육기관	이론교육	실기교육	장소	인원	예비모임
1	서울 교육장	4/29,30 (09:00~18:00)	5/1~5/6 (09:00~18:00)	수원 월드컵 수영장	40명	4/22(토) (10:00)
2		6/3,4 (09:00~18:00)	6/5~6/10 (09:00~18:00)		40명	5/27(토) (10:00)
3		7/15,16 (09:00~18:00)	7/17~7/12 (09:00~18:00)		40명	7/8(토) (10:00)
4		9/7,8 (09:00~18:00)	9/9~9/14 (09:00~18:00)		40명	9/2(토) (10:00)
5		9/21,22 (09:00~18:00)	9/23~9/28 (09:00~18:00)		40명	9/16(토) (10:00)
1	부산 교육장	5/11,12 (09:00~18:00)	5/13~5/18 (09:00~18:00)	사직 실내 수영장	40명	5/6(토) (13:00)
2		5/19,20 (09:00~18:00)	5/21~5/26 (09:00~18:00)		40명	5/13(토) (13:00)
3		7/15,16 (09:00~18:00)	7/17~7/22 (09:00~18:00)		40명	7/8(토) (13:00)
4		8/12,13 (09:00~18:00)	8/14~8/19 (09:00~18:00)		40명	8/5(토) (13:00)
5		10/21,22 (09:00~18:00)	10/23~10/28 (09:00~18:00)		40명	10/14(토) 13:00
1	광주 교육장	5/11,12 (09:00~18:00)	5/13~5/18 (09:00~18:00)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40명	5/6(토) (13:00)
2		5/19,20 (09:00~18:00)	5/21~5/26 (09:00~18:00)		40명	5/13(토) (13:00)
3		6/11,12 (09:00~18:00)	6/13~6/18 (09:00~18:00)		40명	6/10(토) (13:00)
4		7/2,3 (09:00~18:00)	7/4~7/9 (09:00~18:00)		40명	7/1(토) (13:00)
5		11/5,6 (09:00~18:00)	11/7~11/12 (09:00~18:00)		40명	11/4(토) (13:00)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www.marsa.or.kr)에 공지



#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교육 안내

■ 목적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구난 활동 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구조요원을 배출키 위함.

■ 개요            ○ 기 간 : 연중 상설반 운영, 찾아가는 교육(평일반, 주말반, 야간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과 정 : 인명구조요원 신규 및 갱신 과정  
○ 대 상 :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수영장용),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운동화, 사진2매, 자격증사본(갱신교육자에 한함) 등

■ 교육과정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수상일반상식, 인명구조요원자세, 출혈대응, 골절처치, 익수자운반,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24시간)  
    • 각종영법숙달,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익수자 수영구조법, 생존 수영법, 경추환자구조법, 종합구조 실습 및 평가  
○ 제출서류 : 인교육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면책동의서 1부, 병력기록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사진 3x4 2장 외 jpg 1장 (증명사진 jpg 파일 1장은 자격증 제작 시 사용함)

■ 신규교육절차



■ 교육비 수납    ○ 교육비 : 신규 200,000원 / 갱신 50,000원  
○ 계좌번호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 평가기준    ○ 교육은 교육신청서, 서약서, 면책동의서, 병력기록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접수하기 전 사전평가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사전평가는 자유형 50m, 평영 50m, 잠영 10m 가능한 자로 한다.  
    (단. 심장, 폐 수술 등 심혈관질환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모든 교육은 교육강사 및 평가관으로 구성하여 교육과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인원 편성은 30명으로 하여 인명구조강사 2명, 응급처치강사 1명, 평가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단,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인명구조강사 1명으로 할 수 있다.  
    • 인명구조요원의 합격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  
    • 갱신교육자는 1일(8시간)의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유예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는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수료 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최종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 교육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2017년도 상반기 행사안내

- 행사명            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 일 시            2017. 04. 26.(수)~28(금) 3일간 10:00~17:00
- 장 소            대구 EXCO
- 내 용            우리협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굴지의 국내 소방기업들의 참가뿐만 아니라 안전체험관 등을 기획하며 실제 지진의 강도를 느낄 수 있는 VR 이동식 안전 체험관을 구현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우리협회는 선박사고 탈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해상사고 대처요령 등을 알려주는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국민안전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행사명            제7회 튼튼쑥쑥 어린이 박람회
- 일 시            2017. 04. 28(금)~30(일) 3일간 10:00~18:00
- 장 소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A홀

- 내 용            우리협회는 제7회 튼튼쑥쑥 어린이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아이들의 생활 속 안전과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협회는 불시에 발생하는 해상사고에 대비한 대응능력과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행사명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 일 시            2017. 06. 14(수)~16(금) 3일간
- 장 소            부산 BEXCO 제1전시장 및 컨퍼런스 홀
- 내 용            우리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에도 참가한다. 작년 한해 160개사 400여개 부스가 운영되었던 이 행사는 '해양안전 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해양안전 국제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협회는 관람객에게 해양안전수칙과 응급처치(구조)요령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협회후원안내

###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 3) 후원회원이 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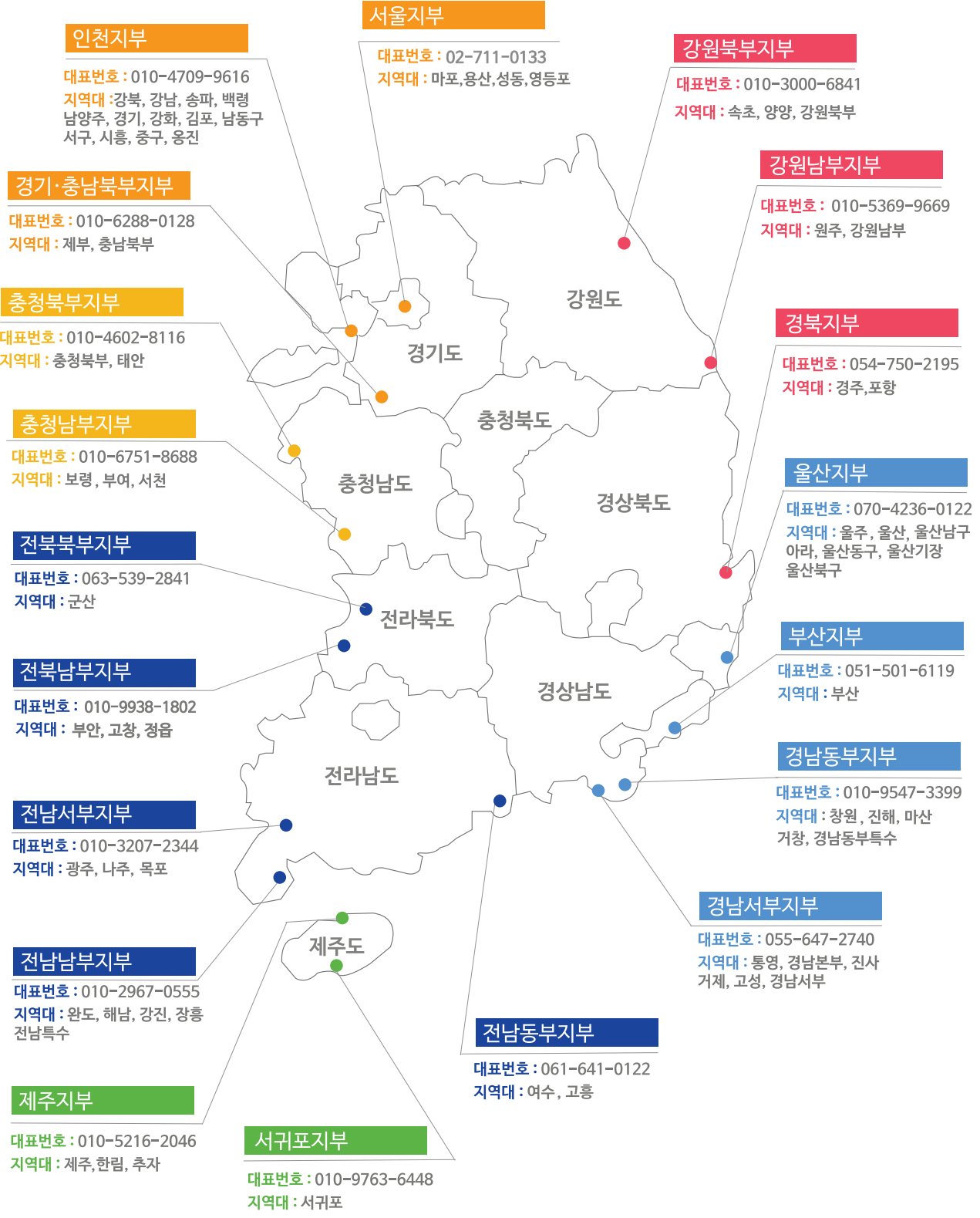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marsa122@marsa.or.kr |



# 각 지역 지부 및 구조대 연락처



※ 지역대 : 구조대, 구난대, 봉사대, 교육지원대



「영상촬영 제작」은 부산프로덕션이 앞서갑니다

국무총리표창 수상 업체

